

Research Center

2016년 12월 8일

투자전략 Daily

- **스몰캡 투자전략**
동트는 시점을 모를 때에는 나무에 집중하자
- **중화권 증시 동향**
원자재 가격 반등에 중화권 증시 동반 강세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백산 외 5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모두투어 외 5종목
- **기업분석**
고려아연, 이노션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자산배분전략 | 노근환 ☎ 3276-6226
투 자 전 략 | 박소연 ☎ 3276-6176
시 향 분 석 | 김대준 ☎ 3276-6247
계 량 분 석 | 안 혁 ☎ 3276-6272
파 생 / ETF | 강승철 ☎ 3276-6181
스몰캡전략 | 정훈석 ☎ 3276-6232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중 국 시 장 | 최철화 ☎ 3276-6274
경 제 분 석 | 박정우 ☎ 3276-6229
채 권 분 석 | 오창섭 ☎ 3276-6174
해 외 채 권 | 박승진 ☎ 3276-6560
크 레 디 트 | 김기명 ☎ 3276-6206
원 자 재 | 서태종 ☎ 3276-6184

true**friend** 한국투자 증권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2/1(목)	12/2(금)	12/5(월)	12/6(화)	12/7(수)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83.75	1,970.61	1,963.36	1,989.86	1,991.89	
	등락폭	0.27	-13.14	-7.25	26.5	2.03	
	등락종목	상승(상한)	337(0)	284(0)	205(2)	609(0)	317(1)
		하락(하한)	479(0)	520(0)	629(0)	210(0)	505(0)
	ADR	91.34	88.28	80.02	82.19	87.87	
	이격도	10 일	100.28	99.64	99.29	100.59	100.68
		20 일	100.16	99.52	99.24	100.62	100.64
	투자심리	70	70	70	70	70	
	거래량	(백만 주)	218	239	237	215	203
	거래대금	(십억 원)	4,061	3,547	3,072	3,795	3,620
코스닥	코스닥지수	593.85	586.73	575.12	581.35	578.52	
	등락폭	-2.26	-7.12	-11.61	6.23	-2.83	
	등락종목	상승(상한)	421(2)	321(3)	202(2)	811(3)	398(3)
		하락(하한)	665(0)	788(0)	917(0)	283(0)	706(2)
	ADR	88.85	87.92	86.31	87.36	87.07	
	이격도	10 일	98.81	98.17	96.78	98.32	98.20
		20 일	97.30	96.32	94.78	96.15	95.85
	투자심리	40	40	40	40	40	
	거래량	(백만 주)	635	549	621	546	597
	거래대금	(십억 원)	2,653	2,319	2,584	2,471	2,768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579.8	1,347.3	661.5	142.3	70.1	153.8	66.1	9.3	220.0	34.9
	매도	1,565.8	1,269.4	751.9	332.9	74.4	107.7	60.9	11.3	164.8	36.4
	순매수	14.0	77.9	-90.4	-190.6	-4.3	46.1	5.2	-2.1	55.3	-1.5
	12월 누계	-417.0	181.1	203.5	-353.6	56.1	26.9	64.3	-4.5	414.2	32.3
	16년 누계	-7,577.6	10,005.5	-5,351.1	-1,479.8	1,115.2	-5,631.3	1,053.7	-960.7	2,659.5	2,923.1
	코스닥	매수	2,494.9	158.7	92.4	36.4	5.9	17.1	11.1	2.7	19.2
매도		2,477.6	165.8	96.3	27.0	6.2	22.9	12.1	1.7	26.4	33.3
순매수		17.3	-7.1	-3.9	9.4	-0.3	-5.8	-1.0	1.0	-7.3	-6.3
12월 누계		113.8	-21.3	-52.2	34.4	4.8	-34.4	-12.6	0.2	-44.5	-40.4
16년 누계		6,004.8	643.2	-4,465.5	-219.0	-321.5	-1,671.9	-750.6	-152.3	-1,350.4	-2,182.3

동트는 시점을 모를 때에는 나무에 집중하자

2017년 Target KOSPI	2,260pt
12MF PER	9.93배
12MF PBR	0.93배
Yield Gap	8.5%P

- ▶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 하락 리스크보다는 중기 상승 포텐셜에 집중할 필요
- ▶ 가격 메리트는 모든 악재를 압도한다는 점에서 낙폭과대주 선별 작업 유효
- ▶ 12월 중순 이후 1월 효과를 대비한 중소형주에 대한 선취매 전략은 승률 높은 게임

기다리는
산타는 오지 않고
끝 모르게 이어지고 있는
스크루지 장세

■ 아직 바닥을 속단하기는 다소 일러 보이는 코스닥

매년 12월이면 산타렐리에 대한 기대가 한번쯤은 언급되기 마련이지만 올해는 산타렐리는 고사하고 스크루지(Scrooge)의 밤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나 수렁에 빠진 코스닥은 헤어날 기미조차 없어 보인다. 코스닥지수가 580P선을 하회하는 등 웬만해서는 직전 고점들이 연결된 지지선은 훼손되지 않는다는 경험칙마저 와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일부 거시지표들이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일파만파로 확산된 국내정치적 소용돌이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에 더해 대외적으로는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정치적 혼란과 ECB회의, 그리고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불확실성 등은 투자자들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적어도 FOMC회의 혹은 연말까지 코스닥시장의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게 중론을 이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수준은 매력적인 영역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 입각해 보면 역발상적 접근을 고려할 필요성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코스닥이 600P선 이하의 수렁에 빠진 배경을 살펴보면,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언더슈팅(Under-shooting) 과정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중기적 관점에서 보면 추가 하락 리스크(Risk)보다 상승 포텐셜(Potential)이 더 큰 시점이라는 의견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재검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1] 600P선 이탈로 580P선의 지지력 시험국면에 진입한 코스닥



주) 음영부분은 6주 연속 하락한 시기를 표시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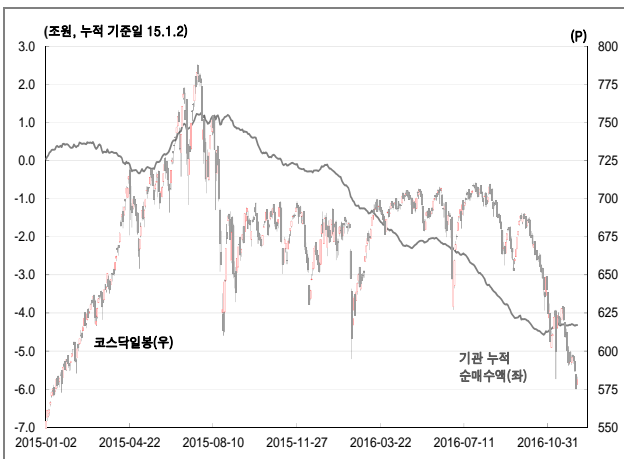
사드(THAAD)로 인해
중소형주들의 성장 기대 훼손

현재와 같이 코스닥이 수렁에 빠진 것은 무엇보다도 중국의 사드(THAAD) 보복이 전방위적 확산됨에 따라 중소형주의 성장 기대가 훼손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 진출을 기반으로 형성된 ‘중소형주의 성장 프리미엄이 사드로 인해 오히려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변모함에 따라 코스닥의 투자시계는 2015년의 중소형주 랠리 이전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한류 및 여행 제한에서부터 비자 발급 제한 조치, 사드 부지를 제공키로 한 롯데에 대한 조사 등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다양한 보복 조치들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그 동안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을 도약대로 삼아 성장성이 부각되었던 중소형주들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수급 부담은
코스닥 조정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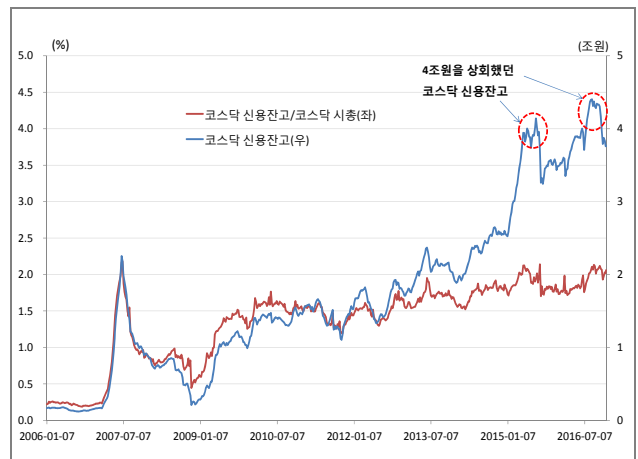
이에 더해 수급적으로는 작년 7월 고점 이후 지속된 기관 매물압력과 사상 최고 수준의 신용잔고 부담이 투자심리를 제약하며 코스닥 추락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더구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삼성전자로의 자금 쏠림현상으로 인한 코스닥 및 중소형주의 수급 제약이 코스닥을 600P선 이하로 주저앉게 만든 주요인 중의 하나로 작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통상 연말에는 배당 수익을 겨냥한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으로 인해 대형주들이 상대적 강세를 보이는 계절성이 엄존한다는 사실도 투자자들의 심리적 지지대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림 2] 코스닥지수와 기관 누적 순매수 추이



자료: DataGuide, 한국투자증권

[그림 3]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자료: DataGuide, 한국투자증권

■ 중기적 측면에서는 하락 리스크보다 상승 포텐셜이 더 큰 지점

화장품 및 제약주들의
Tailing PER은
과거 평균 수준으로
회귀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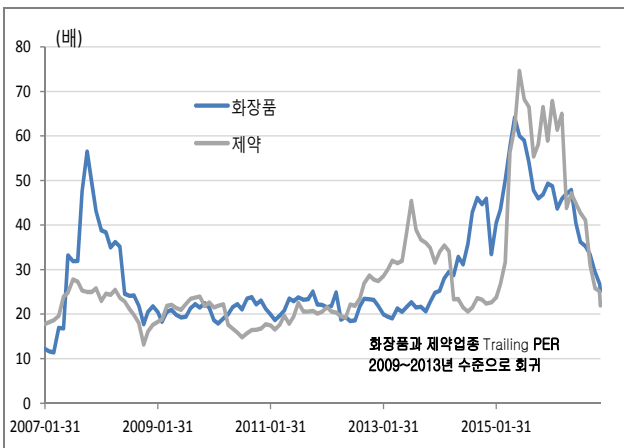
코스닥이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중 관계의 회복이나 국제 역학관계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예측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다만 국제적 역학관계가 치킨게임으로만 치닫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현재의 정치적 소용돌이 이후에는 돌파구가 마련될 여지가 없지는 않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성장주들을 대표하며 중소형주들의 랠리를 주도했던 화장품 및 제약주들이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로 주도주들의 추락이 지속되고 있지만, 화장품 및 제약주들의 Trailing PER은 과거 평균 수준까지 내려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중국 리스크에 대한 주가 반영과정은 9부 능선 언저리를 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더구나 밸류에이션 못지 않게 EPS의 방향성도 매우 중요하다. EPS 전망치의 개선세가 유지되는 한 밸류에이션은 과거 평균에 비해 일정부분 할증거래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의 코스닥 시장 진입은 크게는 무리가 없는 선택이라는 판단이다.

수급은 주가에 후행적,
수급 상황에 과민할
필요는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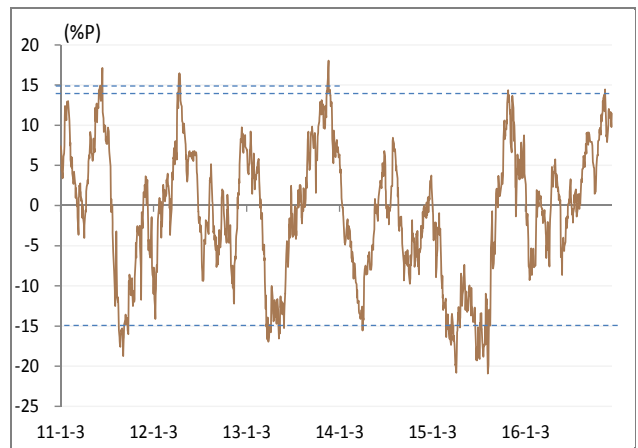
한편 코스닥 폭락으로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는 기관 매물도 최근 들어서는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거래대금도 2.5조원 수준으로 급감하고 있다는 점은 추가 매물 압박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급은 주가에 후행한다는 점에서 수급과 관련한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 삼성전자의 실적현상도 장기간에 걸쳐 일방적으로만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완화될 여지가 충분하다. 더불어 배당 관련한 연말 프로그램 매수세는 역으로 연초에는 매물압력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매년 거의 예외 없이 중소형주들의 1월 효과가 유발되었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 6년간의 유가증권시장 대형주와 코스닥의 3개월간의 수익률 격차를 보면 $\pm 15\%P$ 내외를 한계치로 해 순환(그림 7 참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14%P 이상 치솟았던 대형주와 코스닥의 3개월간의 수익률 격차가 11월을 고점으로 반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3개월간 대형주와 코스닥간 수익률갭이 이례적으로 확대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코스닥지수가 추가적으로 대형주 대비 상대적 약세를 보일 공간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4분기 들어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낙폭이 컸던 중소형주들에 대해서는 중기적 관점에서의 바텀피싱(bottom-fishing)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화장품과 제약주의 Trailing PER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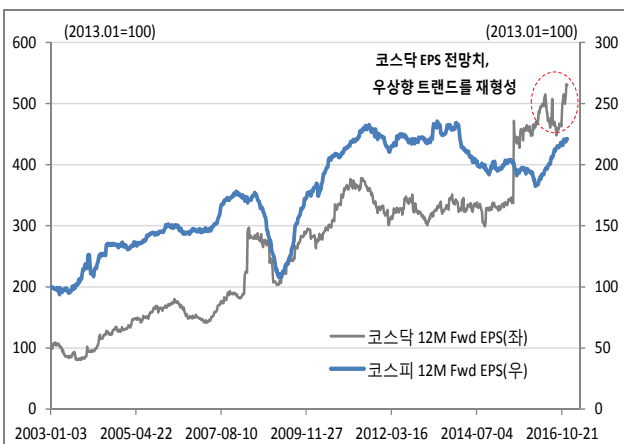
자료: 와이즈에프앤, 한국투자증권

[그림 5] 유가증권시장 대형주와 코스닥의 3개월 수익률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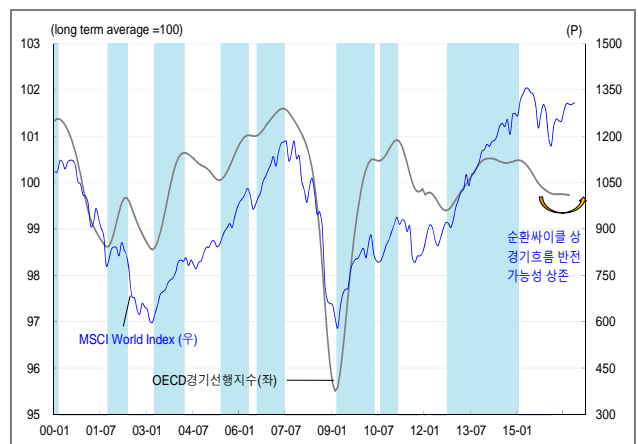
자료: 와이즈에프앤, 한국투자증권

[그림 6] 코스피와 코스닥 EPS 추이



자료: 와이즈에프앤, 한국투자증권

[그림 7] OECD경기선행지수와 세계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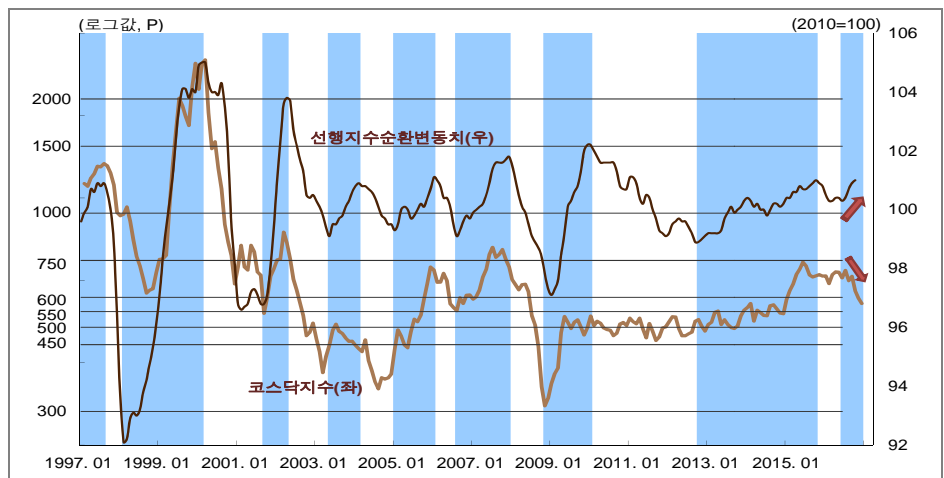


주) 음영부분은 OECD경기지수 상승기간을 표시
자료: 와이즈에프앤, 한국투자증권

글로벌 경기에 대한
낙관론 확산을 주목할 필요

글로벌 경기 사이클 전환과 함께 글로벌 기업들의 이익 사이클 전환도 예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낙폭이 컸던 중소형주들에서 손을 빼는 것은 오히려 기회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교역과 투자 부진 등으로 세계경제는 여전히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요국들의 재정확대와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내년에는 한층 개선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4년 7개월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로 전환한 중국의 생산자물가가 10월에도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11월 중국의 제조업 PMI는 2년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중국 경제 및 과잉설비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고 있다. 글로벌 경기에 대한 낙관적 시각이 추가 확산될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국내 경기와 글로벌 경기의 괴리는 수렴되기 마련이라는 점과 경기선행지수와 코스닥지수의 디버전스는 오랜기간 지속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코스닥시장은 조정의 끝자락에 놓여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림 8]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코스닥지수



주) 음영부분은 경기선행지수순환변동치의 상승기간을 표시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 **진바닥(Rock Bottom) 구축 이전이라도 낙폭과대주에 대한 접근 유효**

코스닥시장의 바닥을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종목이나 실적 개선 모멘텀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운데 고공권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가격 메리트는 제반 리스크를 압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조정을 받은 낙폭과대주들에 대한 선별작업은 유의미해 보인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는 증시격언을 역으로 보면, 낙폭이 클수록 기술적 반동이 수반될 여지가 크다. 기업의 개별적인 악재나 업황의 큰 변화 없이 수급악화로 인해 낙폭이 깊어진 종목들은 시장 안정 시 빠른 되돌림을 보일 공산이 크다.

특히 금번 조정국면에서는 펀더멘탈보다는 수급적 영향에서 낙폭이 유발된 종목을 구분하기 위해 우선, 코스닥 하락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기관매도가 집중된 종목을 선별하였다. 기관 매물압박이 집중된 종목들 중 연중 고점 대비 단순 낙폭과대주들을 선별해 보았고, 이에 더하여 낙폭과대주 중 저평가주들을 선별하는 한편 낙폭과대주들 중 4분기 실적 개선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들을 선별해 보았다.

종목 선별 작업은 다음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8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관 순매수액을 3개월 평균 시가총액으로 나누어 기관의 순매도 강도가 높은 상위 30% 기업을 선정하였다. 이중에서 연중 최고가 대비 낙폭이 큰 종목을 선별해 <표1>에 정리하

기관의 매도가 집중되어
낙폭이 깊어진 종목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들은
반등시 빠른 회복력 기대

스몰캡 투자전략

였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코스닥지수 하락률 이상의 급락세를 보인 종목들 중에서 2017년 예상 PER이 6배 미만으로 저평가 되어 있는 종목을 선정해 <표2>에 정리하는 한편 <표3>에는 낙폭과대주들 중 정성적 방법을 가미해 4분기 실적 개선 모멘텀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선별하였다.

<표 1> 연간 고점 대비 낙폭과대 종목

(단위: %, 배)

종목명	시총 대비 기관	연간고점대비 하락률	PER (2017F)	종목명	시총 대비 기관	연간고점대비 하락률	PER (2017F)
신진에스엠	2.0	64.5	9.7	엔지스테크널리지	6.8	54.4	20.9
아이마켓코리아	3.4	60.8	8.4	케어젠	1.5	54.3	20.9
한국콜마홀딩스	3.6	58.1	10.5	영원무역	3.7	52.4	7.4
우리산업	5.1	56.6	9.3	한솔테크닉스	5.5	51.3	10.7
CJ CGV	3.5	56.4	21.2	우리손에프앤지	7.4	49.8	6.9
벽산	2.1	54.7	11.7	동성화학	3.5	47.3	4.9

주) P/E는 2017년 예상이익 기준이며, 누적순매수 집계 기간은 8월 31일부터 11월 30일중이고, 연간 고점 대비 하락률은 연간 최고가 대비 12월6일 종가로 산출
자료: 와이즈에프엔

<표 2> 낙폭과대주들 중 2017년 예상 PER 6배 이하인 종목

(단위: %, 배)

종목명	시총 대비 기관 순매도 비율	연간고점대비 하락률	PER (2017F)	PBR	비고
아진산업	4.0	35.8	3.5	1.1	현대차 아웃소싱 물량 확보 및 신규모델 대규모 수주 가능성
송원산업	3.6	33.8	5.6	1.2	글로벌 산화 방지제 수요 확대 및 경쟁사 생산 차질
동성화학	3.4	47.2	4.9	1.0	일시적인 자회사 실적 부진 해소로 4Q 실적 회복
화신	1.0	41.6	5.7	0.5	중국과 브라질 법인의 신차효과로 인한 실적 회복
베셀	1.6	36.4	5.0	1.6	중국 LCD/OLED패널업체들의 투자 확대 수혜 전망
다우기술	0.8	40.9	3.6	0.5	서비스 및 클라우드 부문 성장 지속

주) P/E는 2017년 예상이익 기준이며, 누적순매수 집계 기간은 8월 31일부터 11월 30일중이고, 연간 고점 대비 하락률은 연간 최고가 대비 12월6일 종가로 산출
자료: 와이즈에프엔

<표 3> 낙폭과대주들 중 4분기 실적 개선주

(단위: %, 배)

종목명	시총 대비 기관 순매도 비율	연간고점대비 하락률	PER (2017F)	증감률(전년동기대비)			비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피에스케이	3.3	23.9	9.1	40.4	108.7	110.0	3D NAND 생산라인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전망
세비츠	5.6	30.0	12.8	13.2	41.0	89.6	강달러 현상 및 신제품 출시효과로 실적 개선세 전망
세코닉스	4.2	34.4	8.2	7.7	781.5	150.7	자동차용 카메라 렌즈 및 모듈 사업 확대 기조 지속
AJ렌터카	1.6	32.3	8.7	-1.9	52.3	150.7	4분기 실적 개선 및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 상존
휴니드	2.0	33.4	9.5	352.1	920.1	599.3	대용량 무선전송체계 납품 실적 반영으로 실적 개선

주) P/E는 2017년 예상이익 기준이며, 누적순매수 집계 기간은 8월 31일부터 11월 30일중이고, 연간 고점 대비 하락률은 연간 최고가 대비 12월6일 종가로 산출
자료: 와이즈에프엔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서 고객의 투자 결정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원자재 가격 반등에 중화권 증시 동반 강세

- ▶ 상해종합지수 0.7% 상승, 원자재 시장에서 관련 제품들의 반등한 것이 호재로 작용
- ▶ 홍콩H지수는 0.6% 상승, 원자재 가격 반등과 본토 증시의 강세 전환이 호재로 작용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 0.7% 상승,
철강, 조선, 비철금속, 석탄,
화학 등의 업종이 강세

상해종합지수가 하루 만에 0.7% 반등한 3,222p로 마감했다. 오전에 계속 약보합을 보였으나 오후에 들어 반등폭을 꾸준히 확대해나갔다. 거래대금도 1,894억위안으로 직전일에서 소폭 늘어나면서 최근 감독당국의 규제에 대한 위축 심리가 다소 완화됐다. 금일 원자재 시장에서 관련 제품들의 가격이 반등했던 것이 중국 주식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했다. 철강, 조선, 비철금속, 석탄, 화학 등 업종들이 일제히 상승하며 지수 강세를 견인했다. 또한 여러 현지 증권사들의 연말 포럼에서 내년 중국 주식시장의 투자 매력도가 상승할 것이라 전망들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다. 대부분 업종들이 상승 마감했던 가운데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통신과 은행에 차이매물이 출회했다. 심천성분지수는 선구통 시행에 따른 자금 유입으로 0.7% 상승한 10,856p로 마감했으나 차스닥 시장은 중소형주의 약세로 반등폭은 0.6%에 그쳤다. 한편 장 마감이후 발표된 11월 외환보유고 감소액은 691억달러로 1월이후 월간 최대 감소액을 기록했으며, 외국인들은 후구통과 선구통을 통해 금일 총 20억위안의 A주를 매입했다.

■ 홍콩 시장

홍콩H지수 0.6% 상승,
소비재, 산업재, 에너지, 금
융 등의 업종이 강세

홍콩H지수는 0.6% 상승한 9,830p로, 이틀째 강세를 보였다. 상승 출발했으나 본토 증시에 동조하며 오전에 약보합세, 오후에 들어 반등폭을 확대해나갔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확대된 가운데 원자재 가격들의 반등이 호재로 작용하며 관련 주가들의 상승을 견인했다. 11월 자동차 판매 실적이 급증하며 장성자동차(2333.HK)가 5% 이상 급등했다. 대부분 기업들이 상승한 가운데 유틸리티, 전기차, 자본재 등이 하락했다. 홍콩 증시 강세로 A/H 프리미엄은 직전일보다 소폭 하락했다.

◆ 중국 주요 금융지표 추이

(단위: p, %)

구 분	12/7 (수)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상해종합	3,222.24	0.71	-0.86	2.84	-8.96
심천종합	2,090.33	0.91	-0.79	1.14	-9.47
차스닥	2,134.99	0.60	-2.20	0.22	-21.34
홍콩H	9,829.58	0.62	-0.09	2.30	1.74
Shibor 7일물 금리(% , %p)	2.49	-0.08	-0.40	3.83	5.77
Shibor 1개월 금리(% , %p)	3.00	0.81	2.86	9.12	-0.08
중국국채 3년물(% , %p)	2.61	-0.53	0.66	10.96	1.74
위안/달러 고시환율	6.8808	0.34	0.02	1.60	5.96
역내 위안/달러	6.8840	-0.03	0.08	-1.56	-5.67
역외 위안/달러	6.9032	-0.22	0.19	-1.58	-4.85

주: 7일 오후 6시 5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유럽 및 미 증시 상승 속 국내 증시는 연기금 순매수로 상승 마감

- 미국시장이 통신주와 금융주의 강세로 다우지수 이들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강보합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전일 급등에 따른 기관의 차익매물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삼성전자의 역사적 신고가 경신과 함께 외국인과 개인 매수세를 기반으로 강보합세를 유지함에 따라 1990P선 방어에 성공하는 모습. 가격 메리트를 기반으로 전일의 상승흐름을 타고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닥시장은 일부 주도 종목들의 급락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580P선을 하루 만에 반납하는 모습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MPK는 인도 외식업체인 카페버디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인도에 5개 매장을 오픈한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으며, 이엔에프테크놀로지는 시장의 우려와 달리 반도체용 소재 부문의 경쟁자 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에 반등세를 나타냄. CJ헬로비전은 하나방송 지분 인수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꾀하고 있다는 분석에 강세를 보였으며, 리노스는 소프트뱅크 계열사의 컨소시엄에 인수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 LG디스플레이는 내년까지 디스플레이 업황 호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케어젠은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결정 및 17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공시에 강세를 나타냄. CJ E&M은 드라마 도깨비의 흥행 기대감에 이들 연속 강세를 보인 반면, 선데이토즈는 주력게임 매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실적 반등이 늦어질 것이라는 분석에 신저가를 기록

종목/테마	내용
MPK(065150) ▶2,040(+18.95%)	미스터피자의 인도시장 진출 소식에 급등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PK가 국내 외식업체 최초로 인도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기록. 인도 외식업체인 카페버디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5개 매장을 오픈할 예정 - 한편, 중국에서는 공격적인 출점을 이어가 내년 50개의 점포를 추가로 개점해 모두 200개점을 운영하여 중국에서 1,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NHN한국사이버결제(060250) ▶12,150(+8.00%)	전일 주가하락으로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일 급락의 원인이 회사의 내부적인 이슈나 시장상황이 아닌 소수계좌에서 일시에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수급 이슈라는 분석에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세 - PG사업은 자체적으로 공격적인 가맹점 확대를 기반으로 내년에도 꾸준한 성장을 보일 예정이며, 시장 경쟁으로 마진은 축소되고 있지만 영업 레버리지로 인해 수익성 향상은 지속될 전망
한미약품(128940) ▶311,000(-10.76%)	기술수출 무산 우려에 신저가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1조원 규모로 글로벌 제약사 안센에게 수출한 당뇨비만 바이오신약의 임상 1상 시험이 보류되었다는 소식에 기술수출 무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신저가를 기록 - 회사측은 임상 환자 모집이 일시적으로 유예된 것이지 임상중단은 아니며 임상 중 자주 발생하는 일시적인 조치이며 임상 시험은 곧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2주 신고가 및 상한가

종목	내용
삼성전자(005930) ▶1,772,000(+1.37%)	- 3D NAND 사업 호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주환원 정책 확대 및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 발표에 신고가
심텍(222800) ▶11,400(+0.44%)	- 반도체 물량 증가 및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지속되며 신고가 기록

단기 유망종목: 백산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백산 (035150)	9,460 (+5.7)	8,950 (1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3Q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3.9%p 상승한 16.3% 기록. 신발부분의 가동률 상승과 스웨이드 및 차량재 확대에 따른 Product mix 개선이 원인. 글로벌 운동화 시장의 구조적 성장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긍정적 베트남 공장의 스웨이드 생산으로 이익 모멘텀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차량 내장재의 경우 고객사 신규모델에 추가 채택되면서 성장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음
싸이맥스 (160980)	15,500 (-2.8)	15,950 (1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장비 업체인 원익IPS, Semes, Applied Materials, 테스, ASMGK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웨이퍼 이송장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삼성전자의 평택 단지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성장성 부각될 전망. 삼성전기의 패널레벨패키지(PLP) 양산 투자가 내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큰폭의 매출 성장 가능
베셀 (141000)	5,250 (-16.9)	6,320 (1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디스플레이 패널업체들의 정부 보조금에 기반한 LCD 생산라인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예정된 투자 스케줄에 따라 In-Line 시스템 수주 모멘텀이 지속될 전망. 내년 예상 수주를 감안, 저평가 매력 존재 OLED 공정에 In-Line 시스템 시험 생산 장비 납품 경험과 Tianma 향 OLED 장비 수주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중국 패널 업체들의 OLED 투자에 따른 수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
에스에너지 (095910)	7,000 (-31.7)	10,250 (1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양광 모듈사업과 시스템 프로젝트 사업인 EPC(설계/조달/시공)사업을 영위. 태양광 원자재 가격 하락과 발전소 설치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 자회사 에스파워(지분 100%)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전문으로 하는 에스인베스트먼트(신설회사)를 물적 분할함에 따라 EPC 사업의 양적 성장 본격화
유니트론텍 (142210)	7,330 (-15.5)	8,679 (09/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전장용 메모리 반도체 부문 1위인 Micron사의 국내 반도체 유통을 독점적으로 담당해 안정적인 매출 성장 기대. 작년부터 발생한 대만 AUO사의 디스플레이 모듈 유통 매출의 빠른 증가세에 주목 '시리얼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조인트벤처 '유니트론텍차이나' 설립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중국 내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사업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
진성티씨 (036890)	8,150 (+35.2)	6,030 (0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대선 후보들의 인프라투자 확대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 인프라투자 증가 기대감으로 Caterpillar, Hitachi 등 글로벌 건설기계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 이들 업체에 굴삭기 하부 주행체 부품을 공급중인 동사의 수혜 가능성 상존. 비용 절감을 위해 완성차 업체들의 부품 아웃소싱 비중이 높아지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유니트론텍은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해 수정주가를 적용하였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모두투어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6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모두투어 (080160)	27,950 (+2.9)	27,150 (11/15)	239	21	18	1,542	1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익에 기여하지 못했던 연결자회사들의 실적이 자유투어를 필두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 - 수요 상승과 점유율 확대에 외형 증가, 인건비와 광고선전비 등 효율적인 비용 집행으로 수익성 개선 예상 - 모두스테이는 내년 1~3개의 운영호텔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돼 순조로운 사업 확장 및 시너지 효과 전망 				
이마트 (139480)	188,000 (+19.7)	157,000 (09/22)	14,600	501	296	10,619	1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마트가 90% 지분을 보유한 신세계프라퍼티의 제1호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하남이 최근 오픈. 2021년까지 총 6개의 복합쇼핑몰을 계획하고 있어 장기적인 성장성에 주목 - 스타필드하남은 스포테인먼트 시설과 유명 맛집 등 집객 효과가 높은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어 교외형 복합쇼핑몰의 성공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은 0.63배로 역사적 최저 수준 				
씨엠에스에듀 (225330)	26,600 (-1.1)	26,900 (08/26)	56.8	10.7	8.9	2,244	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커리큘럼과 교육방식을 기반으로 매출 상승세 지속 - 직영점 및 가맹점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해외 진출 본격화 - 16년 예상 PER은 11배 수준으로 주요 사교육업체 평균 예상 PER 17배 수준 대비 저평가 				
비아트론 (190510)	23,550 (-12.8)	27,000 (08/26)	91.6	24.5	17.7	1,731	1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E를 시작으로 Tianma와 Visionox 등 중국 패널업체들의 flexible OLED 설비투자 본격화에 따른 수혜 전망 - LG디스플레이의 6세대 flexible OLED라인 설비투자 관련 장비 발주 예상 - 주요 고객사의 중소형 OLED 투자 확대에 따른 수주 모멘텀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 				
대상 (001680)	27,850 (-5.1)	29,350 (06/22)	2,946	131	82	2,288	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인신부문이 빠른 공정 효율화 작업으로 수익성 개선되고 있고 하반기 베스트코의 실적 회복 기대 -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식품부문의 영업이익률 향상 전망. 내년 초 공장이 완공되는 인도네시아의 전분/전분당 사업추가로 갈수록 실적 개선 폭 커질 전망 - 올해 예상 PER 12.3배로 업종 평균 21.0배 보다 크게 낮아 밸류에이션 매력 상존 				
SK머티리얼즈 (036490)	152,600 (+23.1)	124,000 (04/25)	462	169	120	11,433	1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그룹에 편입되면서 전반적인 대외신인도 향상 및 시너지 효과 기대. 반도체 사업은 SK그룹의 핵심 육성 사업으로 수직계열화 측면에서 SK머티리얼즈의 전략적 가치 부각 - 반도체 업체들의 지속적인 미세공정 전환과 3D NAND 투자 확대 수혜. 국내 및 중국 디스플레이업체들의 공격적인 플렉서블OLED라인 및 대형 OLED투자로 중장기적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이마트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고려아연(010130)

중립(유지)

종가(12/6): 507,000원

혼돈의 시대

■ 4분기 연결 영업이익 컨센서스 21.3% 상회 예상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2,540억원으로 기존 우리 추정치를 22%, 컨센서스를 21.3%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4분기 적용 비철 가격이 전분기 대비 연 9.6%, 아연 6.1%, 그리고 동이 4.6% 상승했다. 여기에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출하량이 증가한다. 무엇보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원가보다 판가에 적용되는 원/달러 환율이 높아 이익률이 상승할 것이다. 지난 2분기와 3분기는 원가보다 판가에 적용되는 원/달러 환율이 낮았고 이는 저조한 실적의 원인이었다.

■ 비철 가격 전망 상향, 외형 성장은 긍정적

2017년 아연과 연, 그리고 동 가격 전망을 상향한다. 아연은 2,300달러에서 2,800달러, 연은 1,950달러에서 2,450달러, 동은 5,300달러에서 6,000달러로 전망을 변경한다. 반면 금 가격 전망은 1,200달러에서 1,100달러로 낮춘다. 비철금속 강세, 귀금속 및 희소금속 가격 약세를 예상한다. 이를 복합적으로 반영한 매출액은 7조 4,290억원으로 기존 추정 대비 9.5% 증가한다.

■ 가격 강세를 이익 증가로 이어줄 요인들은 부정적

2016년에 아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세였다. 그런데 3분기까지 고려아연의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그 이유는 1) 아연 정광 시장이 정광 공급 부족으로 광산에게 유리한 'Miner Market' 으로 전환되면서 제련수수료가 하락했고, 2) 아시아 지역의 아연 프리미엄이 하락했으며, 3) 귀금속과 희소금속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의 요인들은 2017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1) 아연 광산들이 증산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2) 철강 생산량 정체로 아연 수요가 늘지 않아 프리미엄이 의미 있게 상승할 가능성이 낮으며, 3) 달러 강세로 귀금속 및 희소 금속의 약세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 단기 실적 개선에 따른 주가 반등은 가능,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

아연 가격 강세와 4분기 실적 개선으로 주가의 단기 상승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 비철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더라도 제련수수료의 약세와 낮은 프리미엄, 귀금속과 희소 금속 가격 약세가 이익 증가를 저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주가는 2017년 기준 PER 12.7배, PBR 1.5배(ROE 12.1%)로, 10% 이상 상승할 경우 주가의 고평가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투자 의견 '중립'을 유지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4A	4,939	683	501	28,362	11.9	839	14.2	8.1	1.6	11.4	1.6
2015A	4,771	672	509	28,820	1.6	846	16.3	9.2	1.7	10.5	1.8
2016F	5,880	782	613	34,672	20.3	984	14.6	8.3	1.7	11.5	1.8
2017F	7,429	914	706	39,920	15.1	1,123	12.7	7.0	1.5	12.1	2.2
2018F	8,561	991	762	43,138	8.1	1,205	11.8	6.1	1.4	11.9	2.4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6년 12월 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이노션(214320)

매수(유지)
목표가: 84,000원(하향)
종가(12/6): 58,000원

부진한 업황 속 실적 개선 지속

■ 4Q16 Preview: 미주 지역 실적 개선 지속 예상

4분기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은 각각 3,269억원(+4.6% YoY), 1,104억원(+13.9% YoY), 391억원(+10% YoY)으로 예상된다. 4분기가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업황이 부진해 성수기 효과가 예년대비 낮을 가능성이 크다. 국내 광고 업황은 대내외적 이슈로 부진하고, 중국 역시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파악된다. 국내는 판매 호조를 보였던 제네시스 EQ900, 아반테, 스포티지 등의 전년동기 기저효과와 비우호적인 영업 환경을 감안하면 이익 개선은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신차 출시 효과 등에 따른 미주 지역의 두드러진 성과 확대가 전사 이익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미주 법인 캔버스 월드와이드(캔버스)는 미확정 수익 실현과 사업 안정화로 이익 턴어라운드 예상돼 4분기 39억원의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 성장판은 여전히 열려 있어 수익 호전 지속 전망

이노션 주가는 부진한 국내외 업황에 계열사 실적 우려 등이 겹치며 조정을 면치 못했다. 신차 모멘텀 등에 기반한 수익 호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적 개선은 1) 신차 출시에 따른 계열사의 국내외 마케팅 증가, 2) 비계열 고객사 영업 확대, 3) 캔버스의 외형 확대 및 수익성 개선, 4) 미주 지역의 기아차 광고 제작 물량 대행 기회, 5) M&A(인수합병)를 통한 외형 성장 가능성 등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캔버스는 사업 초기로 인력 충원 등에 소요 기간 등이 길어져 금년에는 이익 가시성이 떨어졌지만 사업 안정화 국면에 진입해 내년부터 외형 및 이익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매출총이익과 영업이익은 각각 496억원(+17% YoY)과 90억원(+225.1% YoY)으로 뚜렷한 실적 개선세가 전망된다. 미주 기아차 광고 제작 물량을 대행하게 되면 연 4천만원의 매출총이익이 더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역량 강화 및 영역 확대를 위해 미주, 유럽, 아시아 등에서 적극적인 인수 합병을 추진 중에 있어 성사시 추가적인 실적 호전이 가능하다.

■ 성장성은 분명하나 업황 부진 감안해 목표주가 8.4만원으로 하향

이노션에 대한 목표주가를 기존 11만원에서 84,000원(2017년 PER 20배 적용)으로 하향한다. 업종 밸류에이션 하락을 반영해 목표 PER을 기존 22배에서 20배(글로벌 동종업체 평균 PER, 표6 참조)로 낮췄고 금년과 내년 지배주주순이익 추정치를 기존대비 각각 8%, 12% 낮췄다. 계열사의 실적 부진을 감안해도 신차 출시 등에 따른 마케팅 확대는 지속되고 비계열 고객사 영업 확대로 안정적인 수익 호전은 이어질 것이다. 보유 순현금은 6천억원으로 현 시가총액의 절반에 달해 저평가 상태다. 크리에이티브, 디지털 부문 인수 합병 등으로 성장 기반을 강화시키고 배당 증가 추이는 지속될 전망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4A	745	83	82	455	(88.4)	89	NM	NM	NM	21.5	-
2015A	988	93	70	370	(18.8)	99	189.2	8.4	23.1	13.7	1.3
2016F	1,070	107	75	3,763	917.9	113	15.4	5.2	1.8	11.9	1.7
2017F	1,146	121	83	4,158	10.5	126	13.9	4.4	1.6	12.1	2.0
2018F	1,217	131	89	4,451	7.0	137	13.0	4.1	1.5	11.9	2.2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6년 12월 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2/1(목)	12/2(금)	12/5(월)	12/6(화)	12/7(수)	
유 가 증 권	종합주가지수	1,983.75	1,970.61	1,963.36	1,989.86	1,991.89	
	등락폭	0.27	-13.14	-7.25	26.5	2.03	
	등락종목	상승(상한)	337(0)	284(0)	205(2)	609(0)	317(1)
		하락(하한)	479(0)	520(0)	629(0)	210(0)	505(0)
	ADR	91.34	88.28	80.02	82.19	87.87	
	이격도	10 일	100.28	99.64	99.29	100.59	100.68
		20 일	100.16	99.52	99.24	100.62	100.64
	투자심리	70	70	70	70	70	
	거래량	(백만 주)	218	239	237	215	203
	거래대금	(십억 원)	4,061	3,547	3,072	3,795	3,620
코 스 닥	코스닥지수	593.85	586.73	575.12	581.35	578.52	
	등락폭	-2.26	-7.12	-11.61	6.23	-2.83	
	등락종목	상승(상한)	421(2)	321(3)	202(2)	811(3)	398(3)
		하락(하한)	665(0)	788(0)	917(0)	283(0)	706(2)
	ADR	88.85	87.92	86.31	87.36	87.07	
	이격도	10 일	98.81	98.17	96.78	98.32	98.20
		20 일	97.30	96.32	94.78	96.15	95.85
	투자심리	40	40	40	40	40	
	거래량	(백만주)	635	549	621	546	597
	거래대금	(십억원)	2,653	2,319	2,584	2,471	2,768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 가 증 권	매수	1,579.8	1,347.3	661.5	142.3	70.1	153.8	66.1	9.3	220.0	34.9
	매도	1,565.8	1,269.4	751.9	332.9	74.4	107.7	60.9	11.3	164.8	36.4
	순매수	14.0	77.9	-90.4	-190.6	-4.3	46.1	5.2	-2.1	55.3	-1.5
	12월 누계	-417.0	181.1	203.5	-353.6	56.1	26.9	64.3	-4.5	414.2	32.3
	16년 누계	-7,577.6	10,005.5	-5,351.1	-1,479.8	1,115.2	-5,631.3	1,053.7	-960.7	2,659.5	2,923.1
코 스 닥	매수	2,494.9	158.7	92.4	36.4	5.9	17.1	11.1	2.7	19.2	27.0
	매도	2,477.6	165.8	96.3	27.0	6.2	22.9	12.1	1.7	26.4	33.3
	순매수	17.3	-7.1	-3.9	9.4	-0.3	-5.8	-1.0	1.0	-7.3	-6.3
	12월 누계	113.8	-21.3	-52.2	34.4	4.8	-34.4	-12.6	0.2	-44.5	-40.4
	16년 누계	6,004.8	643.2	-4,465.5	-219.0	-321.5	-1,671.9	-750.6	-152.3	-1,350.4	-2,182.3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14,053	의약품	-6,708
화학	12,196	통신업	-2,294
보험업	6,399	기계	-2,022
삼성전자	5,951	KODEX 레버리지	-11,418
KODEX 200	5,533	한미약품	-6,426
SK하이닉스	5,454	SK텔레콤	-2,607
SK이노베이션	5,198	POSCO	-2,561
LG화학	3,752	CJ CGV	-2,120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21,465	의약품	-14,825
화학	11,617	기계	-3,754
철강금속	9,281	운수창고	-2,002
LG디스플레이	7,993	한미약품	-9,576
롯데케미칼	7,458	한미사이언스	-4,993
SK텔레콤	6,636	현대글로벌비스	-3,347
삼성전자	6,018	S-Oil	-3,314
현대제철	5,171	아모레G	-2,789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1,844	미분류	-12,810
기타금융업	724	통신업	-1,929
철강금속	566	운수창고	-1,523
SK이노베이션	1,675	KODEX 레버리지	-11,156
KBSTAR 200선물인버스2X	1,360	SK텔레콤	-1,954
한미사이언스	763	팬오션	-1,549
KB금융	742	KODEX 200	-1,478
코오롱인더	345	TIGER 레버리지	-1,309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기타금융업	3,694	서비스업	-5,553
음식료	3,672	미분류	-5,015
운수장비	3,239	의약품	-2,873
LG화학	3,681	한미약품	-4,201
현대차	2,569	TIGER 200	-3,277
KB금융	2,325	삼성전자	-2,910
오리온	2,213	SK이노베이션	-2,390
신한지주	1,920	KODEX 코스닥 150	-1,724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미분류	89,256	전기전자	-42,485
화학	10,793	의약품	-37,819
유통업	9,054	운수창고	-12,555
TIGER 200	49,781	삼성전자	-65,892
KODEX 레버리지	32,297	한미약품	-27,626
KODEX 200	31,677	KODEX 200선물인버스2X	-11,823
LG디스플레이	11,416	POSCO	-8,685
LG화학	9,308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6,330
SK하이닉스	9,306	한미사이언스	-6,191
삼성물산	9,292	TIGER 200선물인버스2X	-5,374
한화케미칼	7,518	S-Oil	-5,145
대한유화	6,037	하나금융지주	-5,039
현대제철	5,454	두산중공업	-4,739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70,005	미분류	-86,402
기타금융업	36,152	서비스업	-35,531
철강금속	32,388	의약품	-10,323
삼성전자	80,895	TIGER 200	-49,601
POSCO	26,842	KODEX 200	-29,564
신한지주	25,570	한미약품	-17,322
삼성바이오로직스	16,738	NAVER	-15,268
SK텔레콤	13,801	삼성물산	-14,519
현대차	11,203	한미사이언스	-9,370
LG화학	11,074	S-Oil	-9,050
아모레퍼시픽	7,434	SK이노베이션	-8,161
하나금융지주	7,103	LS	-6,070
아모레G	4,462	현대산업	-5,936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465	계약	-3,108
방송서비스	367	연구,개발	-1,409
디지털컨텐츠	321	의료,정밀기기	-1,125
지스마트글로벌	864	애니젠	-1,365
SK머티리얼즈	820	셀트리온	-917
인터플렉스	726	메디톡스	-907
SKC코오롱PI	493	신라젠	-881
에스티팜	487	뷰웍스	-642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657	의료,정밀기기	-202
반도체	395	음식료,담배	-159
오락,문화	106	연구,개발	-42
더블유게임즈	657	뷰웍스	-166
유진테크	306	중앙백신	-163
코오롱생명과학	154	뉴트리바이오텍	-88
에스티팜	100	신라젠	-88
휴젤	81	한국알콜	-75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3,226	계약	-6,854
방송서비스	2,949	의료,정밀기기	-2,905
디지털컨텐츠	2,221	연구,개발	-2,022
지스마트글로벌	2,548	애니젠	-5,771
CJ E&M	2,543	신라젠	-2,593
에스티팜	1,272	셀트리온	-2,343
더블유게임즈	1,068	메디톡스	-1,502
솔브레인	1,065	뷰웍스	-1,344
코오롱생명과학	907	NHN한국사이버결제	-1,277
씨젠	902	뉴트리바이오텍	-1,158
SKC코오롱PI	886	테스	-1,058
컴투스	852	덕산네오룩스	-1,012
바이로메드	834	유니온커뮤니티	-901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기계,장비	828	인터넷	-1,018
연구,개발	438	계약	-993
화학	395	반도체	-722
코오롱생명과학	653	셀트리온	-1,649
바이로메드	549	카카오	-1,082
솔브레인	543	이엔에프테크놀로지	-636
진성티이씨	537	덕산네오룩스	-629
씨젠	455	서부T&D	-605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4,572	계약	-5,588
음식료,담배	2,557	연구,개발	-3,392
방송서비스	2,326	의료,정밀기기	-2,296
CJ E&M	2,853	셀트리온	-2,458
뉴트리바이오텍	1,627	바이로메드	-2,107
홈캐스트	1,545	파라다이스	-1,564
KJ프리텍	1,492	유니온커뮤니티	-1,504
코오롱생명과학	1,402	메디톡스	-1,438
동진썬미켄	1,347	솔브레인	-1,049
지스마트글로벌	1,335	썬코어	-1,005
NHN한국사이버결제	1,185	진성티이씨	-1,005
심텍	1,133	신라젠	-966
위메이드	1,120	디오	-898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3,226	계약	-6,854
방송서비스	2,949	의료,정밀기기	-2,905
디지털컨텐츠	2,221	연구,개발	-2,022
지스마트글로벌	2,548	애니젠	-5,771
CJ E&M	2,543	신라젠	-2,593
에스티팜	1,272	셀트리온	-2,343
더블유게임즈	1,068	메디톡스	-1,502
솔브레인	1,065	뷰웍스	-1,344
코오롱생명과학	907	NHN한국사이버결제	-1,277
씨젠	902	뉴트리바이오텍	-1,158
SKC코오롱PI	886	테스	-1,058
컴투스	852	덕산네오룩스	-1,012
바이로메드	834	유니온커뮤니티	-901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유성기업	75 일	현대제철	22 일
대구백화점	42 일	POSCO	20 일
삼영전자	31 일	일성신약	19 일
TREX 200	26 일	BYC	18 일
우신시스템	25 일	황금에스티	15 일
대한제분	25 일	DSR	14 일
삼양통상	23 일	현대글로벌비스	13 일
화천기공	23 일	메리츠증권	13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이베스트투자증권	63 일	금화피에스시	28 일
동양이엔피	39 일	포스코엠텍	20 일
레드캡투어	34 일	코텍	16 일
코리아나	16 일	심텍	15 일
메지온	14 일	데브시스템즈	14 일
네오위즈게임즈	14 일	한스바이오메드	13 일
크리스탈	14 일	에스엠	13 일
JW신약	14 일	에스티아이	12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TIGER 200	160,634	삼성전자	100,779
KODEX 200	156,496	POSCO	65,352
KODEX 레버리지	85,017	현대제철	51,634
SK하이닉스	58,634	LG화학	35,446
LG화학	54,782	SK하이닉스	32,752
현대제철	42,338	SK텔레콤	28,157
현대차	39,781	LG생활건강	27,547
롯데케미칼	35,146	아모레퍼시픽	24,079

KOSDAQ			
기	관	외	국 인
비에이치	9,187	홈캐스트	6,068
동진씨미켄	5,601	뉴트리바이오텍	5,361
바이로메드	5,520	AP시스템	4,020
서울반도체	3,900	이엔에프테크놀로지	3,558
씨젠	3,832	코텍	3,491
에머슨퍼시픽	3,671	대화제약	3,325
원익IPS	3,407	심텍	3,174
더블유게임즈	3,398	비아트론	2,758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기	관	외 국 인 합 계
화학	10,793	2,949	13,742
은행	7,688	1,349	9,037
종이목재	273	24	297
KODEX 레버리지	32,297	636	32,934
LG화학	9,308	11,074	20,382
삼성바이오로직스	559	16,738	17,298
SK하이닉스	9,306	1,996	11,302
KB금융	2,822	3,043	5,865
롯데쇼핑	5,025	488	5,513
현대제철	5,454	31	5,485
우리은행	3,642	1,461	5,103
CJ	2,781	2,122	4,903
LG이노텍	2,469	291	2,760

종 목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반도체	3,226	4,572	7,798
방송서비스	2,949	2,326	5,275
디지털컨텐츠	2,221	668	2,889
CJ E&M	2,543	2,853	5,395
지스마트글로벌	2,548	1,335	3,884
코오롱생명과학	907	1,402	2,310
동진씨미켄	587	1,347	1,934
위메이드	594	1,120	1,713
에스티팜	1,272	438	1,710
홈캐스트	126	1,545	1,671
AP시스템	179	1,056	1,235
에스엠	446	649	1,096
SKC코오롱PI	886	117	1,003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TIGER 가격조정	20 일	한전기술	29 일	모다이노칩	30 일	해덕파워웨이	46 일
KODEX 골드선물(H)	19 일	SJM홀딩스	29 일	신진에스엠	20 일	동일기연	44 일
KODEX 은선물(H)	18 일	TREX 200	26 일	아진산업	20 일	PN풍년	35 일
코오롱플라스틱	18 일	영풍제지	23 일	일지테크	18 일	인화정공	26 일
우진	18 일	KOSEF 200 선물	20 일	에스앤씨엔진그룹	17 일	신성델타테크	25 일
미래에셋대우	16 일	계양전기	18 일	엔에이치스팩3호	16 일	루미마이크로	24 일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15 일	삼영전자	18 일	상아프론테크	13 일	한국캐피탈	24 일
동원F&B	14 일	세기상사	18 일	신한제2호SPAC	12 일	부스타	2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55,204	TIGER 200	-161,752	신라젠	-48,789	셀트리온	-17,307
KODEX 200선물인버스2X	-46,714	KODEX 200	-144,823	셀트리온	-14,767	카카오	-5,994
아모레퍼시픽	-35,929	NAVER	-75,259	퓨처켄	-8,498	바이로메드	-5,600
한미약품	-31,305	삼성SDI	-38,208	애니젠	-5,771	신라젠	-5,378
현대글로비스	-30,552	한국전력	-38,153	오션브릿지	-5,096	원익IPS	-5,348
POSCO	-29,763	SK이노베이션	-37,589	이엔에프테크놀로지	-4,591	CJ E&M	-4,906
아모레G	-26,476	KB금융	-26,238	뉴트리바이오텍	-4,185	휴젤	-4,611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23,514	한화테크윈	-25,147	원익머트리얼즈	-3,132	SK머티리얼즈	-3,331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종 목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합 계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의약품	-37,819	-10,323	-48,142	제약	-6,854	-5,588	-12,442
서비스업	-6,043	-35,531	-41,573	연구,개발	-2,022	-3,392	-5,414
기계	-11,975	213	-11,762	의료,정밀기기	-2,905	-2,296	-5,201
한미약품	-27,626	-17,322	-44,948	애니젠	-5,771	-253	-6,023
NAVER	-514	-15,268	-15,782	셀트리온	-2,343	-2,458	-4,801
한미사이언스	-6,191	-9,370	-15,561	신라젠	-2,593	-966	-3,560
S-Oil	-5,145	-9,050	-14,196	메디투스	-1,502	-1,438	-2,941
KODEX 200선물인버스2X	-11,823	-779	-12,601	유니온커뮤니티	-901	-1,504	-2,405
삼성전기	-3,727	-4,487	-8,214	뉴웍스	-1,344	-860	-2,204
KT&G	-3,576	-3,774	-7,350	파라다이스	-319	-1,564	-1,883
두산중공업	-4,739	-2,493	-7,232	휴젤	-494	-839	-1,333
TIGER 200선물인버스2X	-5,374	-1,039	-6,413	비에이치	-189	-896	-1,086
한국전력	-1,286	-4,155	-5,441	인터엠	0	-808	-809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19	33,960	
LG생활건강	23	18,279	
아모레퍼시픽	47	14,528	
SK하이닉스	171	7,709	
LG화학	31	7,509	
NAVER	9	7,054	
삼성SDI	76	6,845	
현대차	48	6,525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카카오	33	2,450	
셀트리온	19	1,932	
바이로메드	11	1,114	
휴젤	3	1,004	
메디톡스	3	933	
파라다이스	62	785	
삼지전자	59	578	
에이치엘비	40	527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4,208	7,356,323	
SK하이닉스	34,726	1,569,625	
NAVER	1,518	1,147,279	
현대중공업	6,528	1,001,997	
POSCO	3,437	888,572	
현대차	5,266	718,782	
KT&G	6,815	712,211	
LG전자	14,600	687,675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3,739	2,373,884	
카카오	9,841	739,031	
로엔	3,397	256,493	
바이로메드	1,949	197,844	
메디톡스	522	173,076	
컴투스	2,016	158,433	
코미팜	4,512	147,754	
파라다이스	10,226	129,356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증권	574	운수장비	-6,297
섬유의복	343	기계	-5,545
의약품	100	기타금융업	-3,059
미래에셋대우	4,569	삼성중공업	-7,194
한화테크윈	2,233	두산인프라코어	-3,356
신성솔라에너지	1,602	메리츠증권증권	-1,858
흥아해운	777	대우건설	-1,118
삼성바이오로직스	561	기아차	-1,012
한국항공우주	514	한진해운	-900
현대그린푸드	469	신한지주	-895
BGF리테일	342	현대차	-804
신일산업	308	LG전자	-798
JW홀딩스	308	KB금융	-786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통신서비스	498	오락,문화	-2,267
미분류	488	IT부품	-1,421
기계,장비	410	정보기기	-993
세종텔레콤	620	파라다이스	-2,401
셀루메드	471	제이스테판	-982
코미팜	365	우리기술	-422
에스엔유	357	파트론	-410
동국S&C	314	서울반도체	-391
차이나하오란	300	보성파워텍	-377
셀트리온	264	서희건설	-365
바른손이앤에이	248	휘닉스소재	-365
크루셜텍	209	서한	-351
파루	177	CMG제약	-349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2/1(목)	12/2(금)	12/5(월)	12/6(화)	12/7(수)
외국인	10,005.5	181.1	181.1	31.0	-2.0	-4.9	79.1	77.9
기관계	-5,351.1	203.5	203.5	-52.7	-47.6	101.3	292.9	-90.4
(투신)	-5,631.3	26.9	26.9	-4.2	-32.0	21.1	-4.1	46.1
(연기금)	2,776.8	319.3	319.3	-22.9	21.4	-14.9	282.6	53.2
(은행)	-960.7	-4.5	-4.5	1.0	-0.2	-3.3	0.0	-2.1
(보험)	1,115.2	56.1	56.1	8.7	20.1	14.8	16.9	-4.3
개인	-7,577.6	-417.0	-417.0	20.9	23.0	-114.4	-360.5	14.0
기타	2,923.1	32.3	32.3	0.8	26.6	18.0	-11.5	-1.5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3	2014	2015	11/30(수)	12/1(목)	12/2(금)	12/5(월)	12/6(화)
KOSPI	2,011.3	1,915.6	1,961.3	1,978.4	1,983.5	1,970.6	1,963.4	1,989.9
고객예탁금	14,211.8	15,842.5	22,695.6	21,990.9	21,607.5	22,795.3	22,100.8	20,915.4
(증감액)	-3,802.5	1,630.7	6,853.1	-446.3	-383.4	407.3	-694.5	-1,185.4
(회전율)	29.9	34.0	28.8	35.3	37.6	26.6	25.6	30.0
실질예탁금증감	-10,123.5	-2,003.0	7,687.7	-493.3	-334.3	517.7	-630.1	-1,107.8
신용잔고(KOSPI)	2,300.6	2,542.3	3,035.6	2,976.7	2,984.1	2,981.7	2,976.0	2,949.9
신용잔고(KOSDAQ)	1,893.2	2,537.5	3,491.2	3,783.8	3,781.3	3,761.2	3,753.3	3,730.6
미수금	92.9	117.6	151.0	91.9	90.9	94.3	103.4	111.1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11/30(수)	12/1(목)	12/2(금)	12/5(월)	12/6(화)
전체주식형	73,877	-6,646	-812	338	-351	-318	-41	-102
(ex.ETF)		-6,560	-64	-24	-33	-33	7	-5
국내주식형	56,127	-5,981	-798	355	-347	-312	-35	-105
(ex.ETF)		-5,860	-50	-8	-29	-27	13	-8
해외주식형	17,750	-665	-14	-17	-5	-6	-6	2
(ex.ETF)		-700	-14	-17	-5	-6	-6	2
주식혼합형	8,147	-81	20	-2	-2	-4	29	-4
채권혼합형	27,573	-3,209	-131	-73	-66	-15	-28	-22
채권형	107,255	17,941	-284	193	-29	10	-105	-159
MMF	126,037	31,498	8,855	-1,703	304	3,204	3,883	1,463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2/1(목)	12/2(금)	12/5(월)	12/6(화)	12/7(수)
한국	8,794	155	155	26	-2	-4	68	67
대만	9,647	-266	-266	30	-313	-192	209	-
인도	4,035	-118	-118	-59	-18	-	-	-
인도네시아	1,390	-137	-137	-13	-21	-58	-45	-
태국	2,273	45	45	23	-13	-	35	-
남아공	-8,504	-102	-102	-46	-53	-12	10	-
필리핀	265	-9	-9	3	-4	-6	-1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분	2015년말	12/1(목)	12/2(금)	12/5(월)	12/6(화)	12/7(수)
회사채 (AA-)	2.11	2.18	2.19	2.17	2.18	2.18
회사채 (BBB-)	8.06	8.28	8.30	8.28	8.29	8.29
국고채 (3년)	1.66	1.73	1.75	1.72	1.73	1.73
국고채 (5년)	1.81	1.93	1.97	1.93	1.93	1.93
국고채 (10년)	2.08	2.20	2.26	2.19	2.20	2.19
미 국채 (10년)	2.27	2.45	2.38	2.39	2.38	-
일 국채 (10년)	0.27	0.03	0.04	0.04	0.05	-
원/달러	1,172.50	1,167.60	1,172.60	1,174.60	1,171.40	1,167.90
원/100엔	972.63	1,028.54	1,024.10	1,032.52	1,030.71	1,021.78
엔/달러	120.55	113.52	114.50	113.76	113.94	114.30
달러/유로	1.09	1.06	1.06	1.05	1.07	1.07
DDR3 1Gb (1333MHz)	1.00	1.15	1.15	1.14	1.14	-
DDR3 2Gb (1333MHz)	1.13	1.44	1.44	1.44	1.45	-
NAND Flash 16Gb (MLC)	1.46	1.86	1.86	1.86	1.86	-
CRB 지수	176.81	192.54	191.69	193.47	192.52	-
LME 지수	2,217.9	2,786.5	2,770.6	2,842.0	2,821.0	-
BDI	478	1,196	1,198	1,196	1,186	-
유가 (WTI, 달러/배럴)	37.04	49.44	51.68	51.79	50.93	-
금 (달러/온스)	1,060.00	1,161.85	1,173.50	1,162.20	1,172.5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8	29	30	1	2
유럽> 10월 M3 통화공급 YoY (4.4%, 5.0%, 5.0%) ECB 드라기 총재 연설	美> 3Q GDP 연간화 QoQ (3.2%, 3.0%, 2.9%) 11월 소비자대지수 (107.1, 101.3, 98.6) 日> 10월 실업률 (3.0%, 3.0%, 3.0%)	韓> 10월 광공업생산 YoY (-1.6%, -1.5%, -2.0%) 美> OPEC 정상회담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9.4%, n/a, 5.5%) 10월 개인소득 (0.6%, 0.4%, 0.3%) 11월 ADP 취업자변동(천명) (216, 170, 147) 日> 10월 광공업생산 MoM (0.1%, 0.0%, 0.6%) 유럽> 11월 CPI 근원 YoY (0.8%, 0.8%, 0.8%)	韓> 11월 CPI YoY (1.3%, 1.5%, 1.3%) 11월 수출 YoY (2.7%, 1.6%, -3.2%) 11월 닛케이 PMI 제조업 (48.0, n/a, 48.0) 美> 연준 베이지북 발표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268, n/a, 251) 11월 마켓 제조업 PMI (54.1, 53.9, 53.9) 中> 11월 차이신 PMI 제조업 (50.9, 50.8, 51.2) 11월 제조업 PMI (51.7, 51.0, 51.2)	韓> 3Q GDP SA 전기대비 (0.6%, 0.7%, 0.7%) 美> 11월 ISM 제조업지수 (53.2, 52.2, 51.9) 11월 비농업부분고용지수 변동 (178k, 175k, 161k) 11월 실업률 (4.6%, 4.9%, 4.9%) 10월 건설지출 MoM (0.5%, 0.5%, -0.4%)
5	6	7	8	9
美> 연준 에반스 연설 11월 마켓 서비스 PMI (54.6, 54.8, 54.7) 中> 선강통 개통 11월 차이신 PMI 서비스업 (51.7, 51.0, 52.4) 日> 11월 닛케이 PMI 서비스업 (51.8, n/a, 50.5) 유럽> 이탈리아 국민투표(4일) 11월 마켓 서비스 PMI (53.9, 54.1, 54.1)	美> 10월 무역수지(십억달러) (-42.6, -42.0, -36.4) 10월 제조업수주 (2.7%, 2.5%, 0.3%) 10월 내구재 주문 (4.6%, 2.0%, 4.8%) 유럽> 11월 GDP SA 전기대비 (0.3%, 0.3%, 0.3%) 11월 GDP SA YoY (1.7%, 1.6%, 1.6%)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9.4%)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255, 268) 中> 11월 수출 YoY (n/a, -5.0%, -7.3%) 日> 10월 BoP 경상수지(십억엔) (n/a, 1559, 1821.0) 3Q GDP SA 전기대비 (n/a, 0.6%, 0.5%) 3Q GDP 연간화 SA QoQ (n/a, 2.3%, 2.2%) 유럽> 12월 ECB 기준금리 결정 (n/a, -0.4%, -0.4%)	美> OPEC 회담 10월 도매재고 MoM (n/a, -0.4%, -0.4%) 12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 (n/a, 94.4, 93.8) 中> 11월 CPI YoY (n/a, 2.2%, 2.1%) 11월 PPI YoY (n/a, 2.2%, 1.2%) 日> 11월 통화량 M3 YoY (n/a, 3.2%, 3.2%)
12	13	14	15	16
日> 핵심기계수주 MoM (n/a, n/a, -3.3%) PPI YoY (n/a, n/a, -2.7%) 3차 산업 지수 MoM (n/a, n/a, -0.1%)	中> 광공업생산 YoY (n/a, 6.1%, 6.1%) 소매판매 YoY (n/a, 10.2%, 10.0%)	美> FOMC 금리 결정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n/a) 소매판매 추정 MoM (n/a, 0.5%, 0.8%) 광공업 생산 MoM (n/a, 0.1%, 0.0%) 日> 광공업생산 MoM (n/a, n/a, 0.1%)	韓> 금융통화위원회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CPI MoM (n/a, n/a, 0.4%) 마켓 미국 제조업 PMI (n/a, n/a, 54.1) 유럽> 마켓 유로존 제조업 PMI (n/a, n/a, 53.7)	美> 주택착공건수(천건) (n/a, n/a, 1323) 유럽> CPI YoY (n/a, n/a, 0.6%)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